

통계로 보는 시사상식

휴대폰 출하량 10억 대 시대와 한국의 휴대폰

글 | 김 규 태 (전자신문 기자)



휴대폰, 사상 처음 10억 대 돌파

시장조사기관인 IDC는 지난 1월25일 2006년 휴대폰 출하량이 10억2000만대로 2005년 8억3300만 대 보다 22.5%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시즌에 출하량이 2억9500만 대로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10억 대를 가볍게 뛰어 넘은 것이다. 지역별로는 브라질, 중국, 인도 등 이른바 신흥 시장에서의 휴대폰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체 출하량의 절반을 넘어섰다. 휴대폰이 개발도상국 이상의 경제적으로 부유한 곳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세계 각지로 퍼지고 있다. IDC 측도 분석보고서에서 신흥 시장에는 초기 수요자에서 교체 수요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향후 이 시장의 비중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같이 성장하는 시장에서 휴대폰의 전통적 강자인 노키아가 1위를 고수했다. 노키아는 전년 대비 31% 증가한 3억4800만 대를 출하, 34.1%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출하된 휴대폰 중 3대 중 하나는 노키아 휴대폰인 셈이다. 2위는 전년보다 49%나 늘어난 2억1700만 대를 출하한 모토로라로 21.3%를 점유했다.

저가 시장 강세에 한국 업체 고전

IDC 자료를 보면 노키아와 모토로라가 50%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11%, 소니에릭슨 8.8%, LG전자 5.8%로 뒤를 이었다. 저가 시장이 강세를 나타내면서, 그 동안 고급 제품으로 위세를 떨쳐왔던 국내 업체들의 점유율 비중이 점차 줄어들게 된 것이다. 노키아의 위력은 실적 발표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같은 날 발표된 이 회사의 지난해 4·4분기 순이익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9%나 늘어났다. 매출도 116억 유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당연히 신흥 시장에서 저가 휴대폰 판매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4·4분기에만 전체 판매량의 10%인 1억대의 판매량을 기록하는 등 위력을 실감케 했다. 이쯤 되면 우리나라가 휴대폰 강국이라는 명제를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할 듯하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대표 주자들은 점유율 면에서도 외국 업체에 밀리고, 수익률 면에서도 고전을 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 측은 “국내 휴대전화 기업 간 기술제휴를 적극 고려하고 고가 프리미엄 제품에서 벗어나 저가 보급형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연한 사업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한편 휴대전화 단품 위주의 경쟁에서 벗어나 서비스와의 접목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야흐로 모바일 시대!’ 라고 뒤늦게 주장해봐야 촌스러울 뿐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모바일이었고, 지금 대부분의 기술이 모바일 시대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데, 웬 소리냐고 하겠지만 이를 입증하는 통계 정보가 계속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해 연간 휴대폰 출하량이 10억 대를 돌파했다고 발표도 나왔다. 고객 등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할 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정보가 계속 생기니 일하는 입장에서 여간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내실을 들여다 보니, 조금은 마음이 답답해진다. 이게 어찌면 마냥 좋아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IT 벤처도 저가 시장에 관심을

이 같은 내용은 단지 휴대폰 제조업체에 국한되지 않는다. 국내 부품소재 기업이 최근 10년간 급성장한 것도 사실 전방산업인 휴대폰 산업 때문이다. 첨단 휴대폰으로 시장을 이끌면서 이들의 구미에 맞는 첨단 제품을 발 빠르게 개발, 공급하면서 경쟁력을 갖춘 것이다. 하지만, 삼성전자, LG전자가 이끄는 첨단 폰 시장보다 당분간 저가 휴대폰 시장 위주로 시장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국내 부품소재 중소기업들도 저가 폰 제조업체에 눈을 돌려야 생존이 가능할 것이다. 카메라 폰용 반도체를 비롯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국내 IT 벤처들이 국내 대기업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그동안 갖춘 실력을 저가폰 시장에서 당당히 발

휘할 수 있도록, 세계 시장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올해도 각종 통계를 보면, 휴대폰 시장이 지난해에 비해 10%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몫이 어느 정도인지, 특히 이 중의 얼마 정도를 우리 IT벤처가 들어갈 수 있을지, 2006년 휴대폰 시장 자료를 벽에다 걸고 ‘와신상담(臥薪嘗膽)’ 해야 하지 않을까. **TTA**

〈5대 휴대폰 제조업체 실적 추이〉

구 분	2005	2006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노키아	시장점유율	32.4%	33.2%	33.4%	34.2%	35.8%
	영업이익율	15.1%	17.2%	16.0%	13.1%	17.8%
모토로라	시장점유율	17.9%	20.4%	22.1%	20.7%	22.3%
	영업이익율	10.3%	11.0%	11.2%	11.9%	4.4%
삼성전자	시장점유율	12.6%	12.8%	11.2%	11.9%	11.0%
	영업이익율	12.1%	10.0%	9.7%	11.1%	8.0%
소니 에릭슨	시장점유율	6.3%	5.9%	6.7%	7.7%	8.8%
	영업이익율	7.1%	7.6%	9.3%	14.9%	13.0%
LG 전자	시장점유율	6.7%	6.9%	6.5%	6.4%	5.8%
	영업이익율	4.5%	-1.7%	-0.1%	3.7%	2.6%

[자료 SA, 4분기는 IDC]